

서평

속고와 통찰, 북한 여성서사의 읽기와 다시 쓰기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김재용·이상경, 소명출판, 2022)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김성경, 창비, 2023)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1. 북한 연구에서 난제 중 난제는 자료이다. 생산된 자료의 공식성 문제에서부터 자료 접근성에 이르는 많은 장벽들은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절망하게 만든다. 북한의 일상사연구를 시도한 박순성은 총론격의 글에서 북한 자료의 특징을 “권력과 이념이 지배하는 (북한-인용자) 사회에서 당-국가체제의 인위적 생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료를 만드는 자의 의도는 그릇”인데, “그릇은 담겨 있는 물건을 숨길 뿐 아니라, 담겨 있지 않은 물건을 우리의 관심 바깥으로 밀어내버린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료만을 해독하려는 작업, 곧 “체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드러내려는 (...) 작업은 오히려 북한의 현실을 감추는 작업”이 될

뿐 해독의 한계와 자료를 만드는 자의 의도를 넘어서려 하나, 이미 그들이 만든 세계 속에 갇히고 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¹⁾

연구기관에 속한 전문 연구자나 현장조사 연구자가 아니라면 북한의 공식자료에 접근하는 일조차 만만찮다. “아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북한 연구가 가장 힘든 곳”²⁾이라는 외국인 독립연구자의 탄식(歎息)은 자료의 입수만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맥락 파악, 내용 검증의 과정조차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도메인은 물론이고 북한 관련 인터넷 도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현실에서, 2022년 10월, 북한자료를 소장한 기관과 산하 도서관에서는 자료 대부분을 특수 자료로 봉인하여 외부인의 자료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자료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적 교류와 일반인의 상호방문,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일상문화를 공유하거나 방문연구가 가능했던 독일의 상황과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다.³⁾ 냉전 시대의 접근법이었던 북한 자료의 ‘크레믈리노로지(Kremlinology)’⁴⁾는 정보의 파편성과 간접적 추론방식을 지속하면서 확인 불가능한 오보를 반복해서 양산하며 북한에 대한 사회정치적 편견을 구조화해 왔다. 반공 냉전체제의 완강한 제도적 실정력이 북한 관련 학자들의 자율적인 생성과 축적, 효율적 지식생산을 가로막고 한정된 이들에게만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북한 학지(學知)의 구성이나 향방조차 크게 왜곡되었다. 북한학의 주류가 체

1) 이상은, 박순성·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4쪽.

2) 마틴 와이저, 「난 국가보안법 피해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1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1942 (2023년 5월 2일 검색)

3)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구술자료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박순성·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200쪽.

4)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한국학연구』 제56집 (2020), 40쪽.

제 경쟁의 한 방편으로 설정되면서 국가이념인 주체사상, 사회주의체제론, 국가기구, 제도와 정책에 편중된 것도 이러한 냉전시대의 유산인 검열체제의 작동과 무관하지 않다.

김성보는 60년대 이후 시작된 북한 학지의 냉전적 구성방식과 87년 민주화 이후 전개된 북한 학지의 반냉전적 구성방식에 이르는 개괄을 통해 북한학의 연구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오직 하나의 단일한 성격을 가진 사회로 이해하며, 그 속에 담긴 다원성, 다양성은 무시하거나 간과한”⁵⁾ 점을 비판하며, 전일화되고 일상불란한 전체주의 국가로 바라보는 데 익숙한 북한관을 벗어나려면 남한중심주의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학의 관점에서 다원성을 담아내는 유연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문화연구는 학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념 중심의 연구 주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창은은 “방문기나 탐사보도를 통한 북한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상 연구, 대중연구, 욕망과 이데올로기 연구”를 제창하며, “북한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 연구를 넘어, 북한 민중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구성하고 북한문화가 어떻게 주체를 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 것”⁶⁾ 이야말로 북한 문화연구의 지향이라고 본다.

조선희의 장편 『세 여자』⁷⁾는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혁명가들의 생애를 다룬 역사소설이다. 작품은 ‘20세기의 봄’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1920년대 사회주의 세례를 받은 식민지 조선의 걸출한 여성운동가인 주세죽

5)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동방학지』 제190집 (2020), 6쪽.

6) 오창은,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제96호 (2018겨울), 42쪽.

7) 조선희, 『세 여자』 (서울: 한겨레출판, 2017; 2020특별판).

(1901-1953?), 허정숙(1902-1991), 고명자(1904-1950?) 등, 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여성서사’이다. 이 여성서사는 익히 알려진 남성 혁명가에게 가려지고 발화되지 못한 여성혁명가의 일상과 내면을 부조함으로써 관음증과 호사 취미⁸⁾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다. 3.1운동 직후부터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시간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지를 무대로 삼은 이야기는 ‘모단(毛斷)걸’을 ‘못된 걸’로, ‘못된 걸’을 ‘모던걸’로 호명해온 가부장적 시선과 통념을 넘어서며,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을 채우는 조직, 이념 중심의 거대서사 대신, 이들 여성혁명가들이 품었던 높은 이상과 망국으로 마주한 최저낙원의 미시서사들을 재현해냈다.

『세 여자』를 지탱하는 이야기와 플롯은 허정숙이라는 ‘여성의 관점’이다. 그녀는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릴 만큼 스캔들로 풍미한 1920년대의 여성사회운동가였다. 그러나 그녀는 검거와 투옥으로 점철된 사회활동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고 화북조선독립연맹에 들어가 항일 무장빨치산 활동에 가담했으며 북한의 여성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한 실천적인 여성정치인이기도 했다. 휴전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몰락을 예감한 박헌영이 젊은 아내와 두 아이를 그녀에게 부탁하는 장면(818-819쪽)과, 8월 종파투쟁의 격랑 속에 그 자신도 구금될 처지에 선 장면(825-826쪽)은 북한정치의 격랑 속에 “혁명의 젠더와 ‘젠더의 혁명’을 동시에 질문해야 했던 여성혁명가”⁹⁾의 면모를 작가가 공들여 재현한 대목이다.

8) 『삼천리』(1931.6)에서 다룬 「현대여류사상가들-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은 여성운동가들의 삶 자체를 대표적인 호사 취미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산주의자 여성’은 그들의 사상과는 무관하게 ‘문란한 성욕의 화신’으로 추문화되었다. 박성은,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8호 (2019), 365쪽.

9) 오혜진, 「서평-여성혁명가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383쪽.

조선희의 『세 여자』가 보여준 여성혁명가서사의 방대한 규모와 성취는 작가 개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운동사와 지성사, 여성학, 북한학, 분단사회학이 거둔 학지(學知)의 바탕과 총량없이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여성의 관점’ ‘여성이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가 되는’ 이 문제적 측면은,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를 개인과 일상의 수많은 개인들의 미시서사로,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의 개별적인 서사를 활성화한다는 데 있다. ‘여성’을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 주체로 내세우는 작업은 ‘소수자로서의 성별과 계급과 지역, 학벌, 성적 지향 등에서 차별과 타자성을 낮설게 경험하게 만들며 인식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다.’¹⁰⁾ 문학과 문화의 담론장에서 ‘여성’이라는 관점의 차용(借用)은 인종주의, 성차별, 국가주의, 군사문화 등과 관련하여 억압 받는 소수자들의 예외적인 입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치의 실천과 동등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¹¹⁾

최근에 간행된 두 권의 책,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 문학』(이하, 『북한의 여성문학』으로 표기함)과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하 『살아남은 여자들』로 표기함)은 ‘북한의 여성서사’를 의제로 삼은 북한여성의 문학과 문화연구에서는 최전선에 놓인 흥미로운 작업이다. 두 저작은 그러나 ‘북한 여성서사’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다르다. 전자가 문헌중심주의에 기초한 꼼꼼한 읽기의 엄밀성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연구자의 여성적 관점이 문화기술지 방식을 빌려 여성생애사를 다시 쓰는 문화실천적 글쓰기의 외양을 보여준다. 관점과 태도가 크게 다르지만 ‘북한의 여성서사’를 천착한 이 두 권의 노작에 담긴 함의와 가치는 함께 짚어볼 만하다.

10)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05), 21~22쪽.

11) 정희진, 위의 책, 241~270쪽.

2. 『북한의 여성문학』은 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여성학의 성과와 맞물려 있는 노작이다.¹²⁾ 이 저작은 여성문학을 제창했던 의제화의 동력을 북한문학이라는 영역으로 옮겨놓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저작은 ‘고난의 행군’ 이후 전개된 북한사회의 변화 추세와 맞물려 여성작가의 출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북한문학장의 변화를 포착해온 오랜 학문적 내공의 결과물이다.

‘북한문학장의 권력화된 남성성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재정위할 수 있다’는 저자들의 논지¹³⁾는 ‘고난의 행군 이후’ 격렬한 사회 변동을 겪은 북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서 연유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변화, 김정은체제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추세 속에 등장한 여성과학자들의 서사 등은 저자들이 북한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놓고 북한 여성서사를 분석하며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주요한

12)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복원과 함께 시작된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역사는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작가와 여성작품의 발굴과 평가하여 남성 위주의 문학사를 극복한다는 지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문학론과 관련된 총론적 저서는 다음과 같다. 유계분, 『페미니즘의 경계와 여성문학 다시 읽기』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서울: 민음사, 2002); 이덕화, 『한국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서울: 예림기획, 2005);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 소명출판, 2008); 김양선, 『경계에 선 여성문학』 (서울: 역락, 2009);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서울: 소명출판, 2012); 구명숙 외, 『한국여성작가자료집』 전6권 (서울: 역락, 2013);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서울: 소명출판, 2017);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1) 등.

13) 김재용은 90년대 북한 여성소설에 담긴 여성서사가 현모양처에서 벗어나 여성의 정체성 찾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와 민족으로 귀환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김재용, 『북한문학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250~259쪽.

근거이자 세목들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여성작가들은 『조선문학』이라는 문학 장으로 대거 진입했다. ‘여성문학’의 흐름이 북한의 문학장에서 공식화된 것이 2000년대 이후임을 떠올려 보면,¹⁴⁾ 이 책은 북한 여성작가들의 소설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문제, 여성서사의 윤곽을 조망해낸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¹⁵⁾

저자들은 소설 텍스트가 가진 다성성에 주목하여 ‘꼼꼼한 읽기’¹⁶⁾를 통해 ‘여성작가가 재현해낸 여성서사’에서 여성이라는 주체의 특징과 여성 문제를 주목하며 여성문학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했다.¹⁷⁾ 저자들은 지금까지 북한문학을 독해해온 당 정책과 현실정치의 변화에 주목하는 방

14)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조선문학』 2008.3.

15) 북한의 여성문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조된다. 김현숙,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 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1권 (1995); 이주미, 「북한 문학을 통해 본 여성 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제8권 (2001); 최영석, 「여성 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연구』 제23권 (2004);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 (2007);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모성·조국에 양상」 『여성문학연구』 제18권 (2007); 오창은, 「북한에도 페미니즘 소설이 있을까」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 생활』 (과주: 서해문집, 2020).

16)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의 연원은 러시아 형식주의와 미국 신비평에서 구할 수 있다. ‘문학비평가(연구자)의 임무는 ‘문학성’을 규정하는 작업이므로 일상 언어와 다른 문학언어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문학론은 미국 신비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술적 장치이자 자족적 존재로서의 텍스트에 주목하여 실제 저자와 극적 발언자의 구별(리처즈 I. A. Richards), 텍스트의 비준거적 언어(non-referential language)로서의 특징에 주목하는 한편, 텍스트의 역사성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신비평이론의 기본적 관점이었다.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클리어드 브룩스, 이경수 역, 『잘 빛어진 항아리』 (서울: 홍성사, 1983); 한국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715-716쪽.

17) 이상경, 「국가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긴장, 손지연 편, 『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서울: 소명출판, 2022), 48쪽.

식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여성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문학의 시기를 ‘해방 이후의 여성문학’(1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문학’(2부)로 대별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로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저자들은 ‘여성 작가’ ‘소설’로 한정시켜 북한 여성정책이 가진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중성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작동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해방 이전부터 여성문학을 제창한 임순득이 있다. 임순득은 1940년대 초반 일본어로 쓴 소설에서조차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사상적 긴장과 민족적 성찰을 감행했으며 근대문학의 역사에서 여성문학론을 처음 주창한 작가였다. 이런 공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그녀를 북한 여성문학의 기원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 작가로 전제한다.¹⁸⁾ 임순득은,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북한문학과 문화장에서 처음으로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의 긴장’이라는 인식틀을 제시한 작가이다.

저자들은 임순득의 소설 「작업반원들」 「어느 한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후복구 시기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의 원형으로 꼽는다.¹⁹⁾ 저자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등장한 김자경 소설의 여성서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인,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여성의 개인적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의 기원으로 임순득의 소설로 전제했다.²⁰⁾ 60년대 천리마시기를 거쳐 7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 시기, 80년대 후반 국가사회주의 몰락 시기까지 여성문학의 형세는 임순득이 지향했던 ‘혁명 속 여성’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약화시켰거나 국가주의적 모성으로 호명하는 굴절과 변용의 시기를

18) 김재용 · 이상경,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2), 23~29쪽.

19) 위의 책, 44쪽.

20) 위의 책, 50~51쪽.

거쳤다는 게 저자들이 기술한 논지의 큰 흐름이다. ‘여성해방’의 급진적 제안이었던 콜론타이의 여성론이 1950년대 후반 문학장에서 퇴조한 것도 임순득의 퇴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8월 종파투쟁 이후 집단지도 체제의 몰락과 함께 북한의 여성서사는 전사회적 동원체제와 공업화에 따른 현실 앞에 ‘혁명의 여성’이라는 여성문학의 테제 대신 국가주의에 포획된 여성으로 이행해 갔다고 보며 이정숙의 소설 속 여성서사에서 그러한 징후를 찾아낸다. 이정숙의 소설에서 여성서사의 양상은 여성 주체의 독립성 문제,²¹⁾ 원칙에 충실한 여성상, 양성 평등과 진정한 사랑²²⁾ 등과 같은 문제로 크게 위축되면서 ‘여성 문제’의 충위가 달라진다. 70년대 주체문학 시기의 강복례의 소설에서 여성서사 역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수퍼우먼 유형의 여성상을 제시하는 면모,²³⁾ 80년대 후반 등장한 최상순의 소설에서는 도시-농촌의 격차 문제를 바라보는 여성적 관점이 남성의 출세지향 세태를 비판하는 태도²⁴⁾에 주목한다.

북한의 여성문학이 임순득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이다. 저자들은 2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문학’에서 이 점을 명시해 나간다. 저자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쇠퇴 속에 여성서사가 국가를 후경화하고 여성의식을 전면화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 점이야말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이라고 본다. 김일성 주석 급서(1994) 이후 최근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조선문학』이라는 북한의 문학장에는 여성작가들이 대거 진입하여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친다. 김혜영, 박혜란, 리라순, 최련, 변월녀, 강귀미, 김자경, 이정옥, 김은희, 김성희와 같은 여성작가들이 그 주인공이다. 북한의 문학장에 여성작가들이 대거 진입한 배경에는 배급

21) 위의 책, 52~57쪽.

22) 위의 책, 57~63쪽.

23) 위의 책, 64~72쪽.

24) 위의 책, 73~96쪽.

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그 시스템을 관장 해온 가부장적 남성권력이 약화, 퇴조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저자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시스템 약화와 남성 가부장적 권력의 퇴조에 다성적 발화가 가능한 소설 장르에서 특히 공식적 언술 이면에 놓여 있던 비공식적 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에 주목한다.²⁵⁾ 저자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남성이가부장적 권력이 퇴조하면서 실화문학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영웅들의 면모가 여성작가들의 여성서사에 반영되면서 여성문제와 여성의식의 폭넓은 변화를 낳은 것으로 본다.²⁶⁾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서 여성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양상은 “육체적 노동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산업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과학기술의 정신적 노동이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며 생겨난 현상으로 서술되며,²⁷⁾ 이를 여성서사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여성문학의 등장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로 본다. 이는 또한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강국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층위에서 여성의 내밀한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소설의 다성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저자들의 논지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대간의 인식 편차를 다룬 한정아의 『녀학자의 고백』,²⁸⁾ ‘고난의 행군’을 성찰하며 미국의 경제 봉쇄와 무역제재를 소재로 삼으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담은 김혜영의 소설,²⁹⁾ 여성과학자의 연구활동과 양립하기 어려운 가사 및 육아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서사화한 리라순의 작품

25) 위의 책, 102~103쪽.

26) 위의 책, 104~115쪽.

27) 위의 책, 117쪽.

28) 위의 책, 126~176쪽.

29) 위의 책, 177~199쪽.

과³⁰⁾ 김자경의 소설³¹⁾ 등등이 구체적인 사례다. 이들의 여성서사에 등장하는 여성기술자와 과학자, 연구원들은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성가부장적 권위와 관료제를 비판하고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정체성 변화야말로 여성문학의 가능성에 해당한다.

『북한의 여성문학』은 문학연구에서도 문헌주의에 입각한 ‘꼼꼼히 읽기’라는 모범적인 독해방식을 감행한다.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자들의 노력은 북한소설의 공식성이 가진 서사의 경직성을 벗어나 작가와 서술주체와 재현 대상에 이르는 ‘여성’의 관점과 여성서사의 범위 설정, 여성정책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문학장의 변화 등에 이르는 독해의 가능성을 개방해 놓았다. 이는 시론적 가치를 넘어서 체제와 이념에서 벗어나 ‘북한의 여성문학’이라는 새로운 거점 하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공과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순득의 여성문학론을 기원으로 삼고 200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한 성과와 함께 ‘여성혁명과 혁명 속 여성’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직장에서의 사회적 독립성, 연애와 사랑, 결혼과 육아, 국가 정책과의 관련, 사회 변화 속 여성상)이 가진 공식성과 통시적 변화를 함께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북한문학의 시야와 논의를 확장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문학이라는 자료의 공식성’이 가진 특징과 해석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소설텍스트의 꼼꼼한 읽기를 실천한 독해방식은 바흐친이 내세운 ‘이야기의 다성성’을 전제로 삼고, 여성 특유의 섬세한 일상적 감각과 문화적 위치를 파악하며 텍스트의 이면을 포착하는 데 특히 유용해 보인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된 여성서사가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관료화되고 국가주의에 입각한 표현의 공식성을 우회하며 이

30) 위의 책, 200~240쪽.

31) 위의 책, 241~286쪽.

이야기에 담긴 ‘일상의 무게’와 ‘속삭임’을 읽어내는 데 유용한 도구이자 인식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저자들이 ‘북한의 여성문학’이나 여성작가의 소설 속 여성서사만을 다루는 방식은 시론적 시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의의 폭은 좀더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 남성작가가 재현한 여성적 타자성을 수렴하는 문제도 그러하지만,³²⁾ 문헌중심주의에 입각한 여성작가의 여성서사에 한정된 지도그리기(mapping)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소설’에 한정된 ‘여성서사’ 속 ‘여성문제’라는 범주는 텍스트를 엄밀하게 읽기에는 적절하나 통시적 개괄이라는 구도를 제약하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공시적 현상에 대한 서술의 결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제시된 작품들이나 작가의 사례가 제한적이다 보니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하지 못한 점이나 해석의 과잉이나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설 매개항이 다채롭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3. 『북한의 여성문학』에서 드러나는 저자들의 문헌중심주의에 입각한 꼼꼼한 읽기나 북한 여성문학의 가능성 탐색과 달리, 『살아남은 여자들』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관점에서 성찰적 문화기술지를 표방하며 북한여성이라는 텍스트를 다시 쓰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저자는 북한의 TV드라마와 영화, 문학작품과 수기, 중국의 북한 접경지대와 한국, 일본 등에서 만난 탈북민과 조선적 자이니치 등을 면담 조사하며 축적한 구술 증언자료 등도 폭넓게 활용하여 북한여성의 서사를 ‘다시 쓴다(re-write)’.

저자는 앞서 간행한 책에서 이미 정동이론을 근거로 우리 시대의 분단

32) 오테호는 생물학적 여성의 작품만 다루는 방식을 비판하며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여성적 타자성을 수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테호, 「타자의 타자성 발견, 젠더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여성문학의 다층성 추적」 『문학인』 제9호 (2023봄), 463~464쪽.

현실을 다룬 바 있다.³³⁾ 저자는 “분단 문제를 사람들의 경험, 인식, 감정 등의 층위”³⁴⁾를 분석하는 자신의 작업을 “문화정치적 참여와 실천”³⁵⁾이라 천명하며, 분단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의 공시적 의미를 질문하며 관행과 통념을 전복하는 실천적 문화연구의 실체를 드러냈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갈라진 마음들』에서 기술한 문화실천을 ‘성찰적 문화기술지’로 다시 쓴 작업이다. 이 작업은 북한여성의 생애사 다시쓰기(1부 ‘북조선의 살아남은 여자들’) 외에도, 연변에서 만난 탈북여성과 일본에서 조우한 ‘조선적’의 자이니치, 재일 탈북여성의 삶과도 대면하며 ‘분단’이라는 의제가 시공간적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점을 절감하고(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 경계에서 만난 여성들을 연구하는 자신과도 대면하며(3부 ‘분단, 북조선 여자들, 그리고 나’) 자기문화기술지를 써 나간다.

1부에서 시도된 북한여성의 ‘생애사 다시 쓰기’에서는 인상적인 대목 하나가 있다.

“정금아, 공장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된단다. 노임은커녕 배급도 잘 나오지 않는 직장에서 버티지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좀더 자유롭게 살렴. 난 가끔씩 내가 ‘영웅’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단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삶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 의무만 가득한 삶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꿈과 권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너도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일은 그만했으면 한다. 어찌 당과 국가, 수령님이 나보다,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니!”³⁶⁾

33)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파주: 창비, 2020)

34) 위의 책, 7쪽.

35) 위의 책, 8쪽.

36) 김성경,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파주: 창비, 2023), 51-52쪽

북한여성 서사의 ‘공식대본’ 아래 감추어진 ‘은닉대본’³⁷⁾을 이토록 직설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흔치 않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³⁸⁾를 기반으로 천리마시기를 소재로 한 영화와 소설 내용을 참조해 가며 ‘다시 쓴 북한여성의 서사’는 ‘길건실-확실’의 성장기와 가족사이다. ‘다시 쓴 여성 서사’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에 걸쳐 있다. 길건실-확실의 여성서사는 ‘로동영웅’ 칭호를 받은 여성의 공식성과는 별개로 비공식성을 바탕으로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간문 양식이 가진 내면성을 한껏 부각시켜 놓는다. 편지에서 건실은 딸에게 애뜻한 소회를 드러내며 같은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당과 국가, 수령이 나와 내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속삭임’이야말로 북한의 공식텍스트에서는 발화되기 힘든 깊은 속마음에 해당한다.

저자의 ‘여성서사 다시 쓰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직면한 배급제의 와해 같은 국가사회 시스템 붕괴 속에서 발화될 직한 개연성을 한껏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 저자가 초점화시킨 북한여성의 서사는 ‘국가와 민족으로 회귀하지 않는’ ‘개인과 가족’이라는 정체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 정체성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는 표출된 적 없었던, 감추어진 일상과 감각이다. 또한, 이 정체성이야말로 체제나 이념과 상관없이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남도 북도 아닌’ ‘페미니즘적 문화적 위치’에서 번역해낸 ‘여성’의 ‘일상적 감각’이자 ‘내면’에 해당한다. 이 여

37) 지배권력의 억압성이 크면 ‘공식대본’은 의례화된 기술상 특징을 보인다(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서울: 후마니타스, 2020), 29쪽). 그러나 공식대본 안에서는 검열과 억압을 회피하기 위한 가면신사의 포장술도 가동된다. 공식대본의 의례화된 표현 주변에는 일화와 경험들을 분할해서 서술하거나 불온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자기검열의 글쓰기도 가동된다. 유임하, 「개작의 미적 행로와 자기검열의 글쓰기」,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서울: 역락, 2022), 15~20쪽.

38) 길확실,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성의 내면은 속삭임으로 표명될 뿐 침묵을 가장할 수밖에 없는 비공식성의 불온한 재현에 가깝다. 이 젠더상은 체제와 이념 아래 억압된 개인의 욕망과 정념의 개인을 한껏 드러내며 새삼스러우나 ‘우리와 같은 인간 존재’라는 자각으로 이끈다. 어머니가 딸에게 바라는 자유로움의 권고는 저자가 확보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추출해낸 값진 통찰의 한 대목을 이룬다. 이는 체제와 이념을 불문하고 건강하고 유익하게 삶을 성취해 나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속내인 셈이다.

인용에서 언급한, 1부 1장에서 저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토로한 「길건실-확실」의 생애사나³⁹⁾ 1부 2장 「만자, 혜원」 또한 공식대본을 바탕으로 속삭임의 은닉대본을 전면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쓴 여성서사이다. 특히 만자의 딸 혜원의 사업과 몰락은 설송아의 단편 「진옥이」와 「제대군인」을 참조하면서 북한여성의 인터뷰에서 얻은 탈북이주여성의 삶을 허구적으로 서술한 생애사이다.⁴⁰⁾ 만자의 딸 혜원은 창광옷공장 부기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의 손재주와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하여 가내의복공장을 세워 큰돈을 쥐고 마침내 물류와 교통요지인 평성에서 전

39) 1장 1부의 주인공인 길건실-확실은 화전민 딸로 태어나 혹독한 가난을 겪다가 해방을 맞았고, 토지개혁과 민주개혁 조치로 토지를 분배받고 인민학교를 다녔다. 그녀의 가족은 전쟁의 기간을 힘겹게 보내며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으나 영예군인 가족으로 핵심계층에 편입되었다. 길건실은 공장노동자가 되었고 1956년 말, 마침내 천리마작업반장이 된다. 그녀는 작업반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으나 압박감도 가지고 있었다(『살아남은 여자들』, 21~45쪽).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에서 길건실-확실은 ‘천리마 로동영웅’으로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작업반장으로서 높은 책임의식을 발휘한 영웅적 존재의 완결된 서사구조 안에서 실천적 공과를 부각시켰지만 저자는 ‘전후복구시기를 지나 돌연히 노동자가 된 북한여성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쓰기’를 시도했다(『살아남은 여자들』, 55쪽).

40) 김성경, 『살아남은 여자들』, 85~88쪽.

국 단위 장사에 뛰어든다.⁴¹⁾ 혜원은 평성에서 남편의 인맥을 활용하여 유류 암시장사업에 뛰어들고 많은 자금을 모았지만 2009년 화폐개혁으로 된서리를 맞고 중국으로 떠난다.⁴²⁾ 1부 3장 ‘수련’ 또한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2006)를 근간으로 다시 쓴 여성 서사이다. 다시 쓴 수련의 여성서사는 평범한 과학자 가정의 일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세대간 갈등을 넘어 과학을 중시하는 당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과학자의 길을 택하는 영화 속 주인공 수련의 행로⁴³⁾와는 달리, 다시 쓴 여성서사에서 수련은 해외 파견 노동자의 길을 택하여 중국에서 외화벌이로 일상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새로운 여성상이다(3장).⁴⁴⁾ 해외 이주노동자의 삶을 선택한 북한여성의 기술물을 다시 쓰는 작업에서 저자는 한반도 일대에 넘쳐나는 ‘프리캐리아트’의 면모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수필과 편지, 일기와 같은 ‘에고 다큐먼트(ego-document)’가 지닌 비공식성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성찰적 사고를 감행하고 있다. 공식성을 축소하고 비공식성을 전경화하는 방식에서 차용한 ‘여성의 관점’은 재현 대상이었을 때는 발화될 수 없는 하위주체인 북한여성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의 주체로 재배치하는 데 유용하다. 저자는 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에서 조중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의 삶과 탈북여성들의 면모와 일본에서 만난 조선적 자이니치와 제일 탈북여성들이 지닌 경계인의 공간성에 주목한다. 접경지대에서 관찰되는 조선족 사회의 향방을 숙고하는 대목에서는 북한 인민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며 조선족 공동체가 부모의 경제 이주를 경험하며 무력감과 소외의식에 빠진 점⁴⁵⁾을 놓고, “남북을 이어주는

41) 위의 책, 66쪽.

42) 위의 책, 56~79쪽.

43) 위의 책, 109~111쪽.

44) 위의 책, 89~108쪽.

가장 중요한 가교에 균열”과 북한 인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⁴⁶⁾를 우려한다. ‘저자로서의 기술자’의 우려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만 그치지 않고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동하며 ‘공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여성연구자라는 주체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민족과 중국 국민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온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거쳐 북한의 상황과 분단이라는 맥락 안에서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한다. 그 발견은 조선족 커뮤니티의 쇠퇴가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화가 촉발한 것이라는 점,⁴⁷⁾ 이같은 추세로는 북한 여성이주자들이 노후화된 조선족 사회에서 조력자의 처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낳는다.⁴⁸⁾

일별해본 문화기술지의 내용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조중 접경지대와 국내외에서 만난 북한 이주여성의 실상이다. 이들이 보여준 가족 부양의 모성의지와 강인한 생존력(5장 ‘어머니라는 이름의 안팎’),⁴⁹⁾ 일본에서 조선적을 가진 자이니치가 남북관계에 따라 배제와 포용을 오가는 유동적인 경계인적 위치나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6장)⁵⁰⁾ 등을 서술하는 저자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기술지가 현장조사에서 단련된 이해와 공감을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를 환기하는 ‘문화실천적 글쓰기’의 면모이다. 저자는 ‘정동의 문화정치적 차원’ 대신 분단의 현실에서 범람하는 월경과 이주의 상황에 놓인 탈북여성들의 삶을 재현해내는 ‘여성생애사 다시 쓰기’와 병행하여 연구자로서 ‘자기문화기술지’를 서술하는 ‘여성연구자라는 주체’의 면모를 드러내 보인다.⁵¹⁾

45) 위의 책, 130쪽.

46) 위의 책, 131쪽.

47) 위의 책, 131쪽.

48) 위의 책, 132~139쪽.

49) 위의 책, 140~180쪽.

50) 위의 책, 189~190쪽.

문헌 연구가 아닌 공식대본의 재해석을 통한 ‘다시 쓰기’의 문제적 측면은 ‘분단체제’가 가진 초국성에 주목하는 한편, 제3세계 여성사회학자라는 자기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주체라는 페미니즘의 문화적 위치에서 나온다. 그 위치는 제1세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자신의 제3세계적 문화정체성을 체감하는 데서 출발하여 제1세계에 속한 그들만의 정체성과 문화적 위치를 기반으로 설정했던 인종주의와 차별의식, 식민주의적 사고나 이로부터 수립한 의제 설정과는 전혀 다른 인식 지평을 열어놓는다. 또한, 이 성찰과 인식은 여성을 재현의 대상이자 서술주체로 만든다.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견하고 이해하고 공감한 ‘여성의 삶’이라는 텍스트는 남과 북이라는 문화적 위치가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일상의 감각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 쓰는 문화실천의 행위를 낳는다. 여성의 생애를 다시 쓰기 위해 저자는 “나의 타자되기”⁵²⁾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탈북여성의 생애 다시 쓰기를 통해 ‘타자의 주체화’를 감행한다. 여성생애사의 다시 쓰기는 ‘완결되지 않은/완결 될 수

51) 3부에서 저자는 만주에서 태어난 내력에 대한 시어머니의 오랜 침묵과 대면한다. 저자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족 안에서조차 식민지 조선인의 경험과 마주하며 분단의 오랜 연원이 된 만주라는 식민 공간의 현장과 접촉한다. 시어머니의 만주에서의 기억에서는 위계화된 일본인, 조선인, 중국들의 구별과 서열을 감지하기도 한다. 또한, 해방이 되자 시어머니는 시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너 남쪽 농촌으로 귀국했던 기억과 대면하면서 저자는 시어머니의 기억으로부터 조중 접경지대에서 탈북여성들과의 연계된 지점을 발견한다. 시어머니와 탈북여성의 연계된 기억은 연구자로서 기억을 성찰하는 자기 정체성과 문화적 위치를 성찰하게 해준다. 이처럼 저자는 자신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담화 끝에 마주한 파편적 기억으로 재구되는 생애로부터 분단의 역사성을 발견하며 ‘분단된 나라’의 현재적 지점과 만난다(김성경, 『살아남은 여자들』, 207~271쪽). 시어머니와의 기억여행은 연구자의 성찰이 잊혀진 개인의 역사적 궤적으로 통해 무수한 개인들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역사의 두터운 끈’을 형성하는 셈이다.

52) 위의 책, 240쪽.

없는' 과정을 담는다는 점에서 늘 완결된 구조를 벗어난다. 다시 쓰는 여성생애사는 '쓴다는 행위'의 남성적 특권을 내려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⁵³⁾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비극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대와 제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유연성을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가 보여준 '자기성찰적 문화기술지'의 면모는 『갈라진 마음』에서 확인했듯이, 유학 시절 제1세계 학술장에서 겪은 경계인으로서 경험을 한층 예각화한 것으로, 오랜 면담조사에서 단련된 반성적 사유와 성찰이 낳은 '저자로서의 여성연구자'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같은 경험들을 성찰하고 이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자기문화기술지의 면모(8장 '경계인, 연구자')는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견고함 아래서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벗어나 속삭임마저 어려운 속마음을 전면화하거나, 조종 접경지대에서 만난 이주여성들과의 면담, 탈북민의 심층면담에서 이해와 공감 속에 발화되지 못한 은닉대본 속, 날것 그대로의 일상 감각과 '신체성the bodiness'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4. '북한 여성서사'에 관한 두 저작은 '여성의 관점'을 규정하는 방식에서나 특성, 서술방식과 서술 방향이 크게 다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두 권의 노작이 '북한학'이라는 연구 방향과 학문 정체성을 초과하며 성찰하게 만드는 것은 커다란 미덕이다. 이들 저작에서 '여성'의 관점은 남성 중심의 주류담론이 가진 관행적 사고와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두 권의 저작에서 여성서사를 독해하거나 다시 쓰기를 시도하는 작업은 견고한 권력의 실체와 위계들, 문화적 경계와 균열을 징후적으로

53) 본래 전기나 자서전은 공적 영역을 장악해온 남성작가의 문화적 소산이었다. 자서전의 어원이 자기(auto)의 삶(bio)을 기록하여 의미를 남기려는 남성의 권력화된 욕망을 반영한다. 김경일, 『근대 여성 12인, 나를 말하다-자서전과 전기로 본 여성의 삶과 근대』 (서울: 책과함께, 2020), 34쪽.

포착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이데올로기와 공식성이라는 누빔짐 아래 놓인 속삭임과 욕망과 미세한 정체성 변화, 국가 민족이라는 거대 서사로 회귀하지 않는 주체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일이다. 두 저작에서 공유하는 ‘여성의 관점’은 문학에서든 사회학에서든 간에 견고한 제도와 규범 아래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을 감행하는 전복적 시도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권력화되고 폭력화된 중심을 해체, 전복하며 온갖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해방적 주체를 꿈꾸는 불온성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듯, ‘여성이라는 서술 주체’는 분단과 전쟁, 장기지속되는 분단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하위주체들의 문화적 입지 하나를 차지한다. 북한 여성들이 겪은 일상 속 제반 경험을 서사로 재현한 점에 주목한 저자들은 흥미롭게도 여성서사가 가진 다성성의 특징을 북한문학의 이해를 높이는 전복적 독해로 원용하며 ‘북한의 여성문학은 가능한가’라는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전작으로 답아냈다. 북한 내부의 공식자료의 하나인 『조선문학』과 『조선녀성』이라는 미디어장에서 선별한 소설텍스트 속 여성 서사를 통해 북한문학의 이해를 확장시키려는 저자들의 시도는 권력화된 문학장에서 가능성으로만 포착되었던 여성문학의 실체와 윤곽을 처음 포착한 값진 성과이다. 문학연구에서 소설텍스트가 가진 다성성을 매개로 삼아 북한문학 속 여성서사의 시대적 추이와 여성문제를 취급하는 경로와 텍스트 읽기의 엄밀성은 『북한의 여성문학』이 가진 미덕의 하나다. 북한 여성정책의 추이와 관련된 북한문학 내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텍스트의 꼼꼼한 읽기로 돌파하며 ‘여성문학’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북한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도와 골격을 보여준 값진 성과는 향후 과제로 오체르크(또는 실화문학)나 시, 가사, 비평 등의 장르에서 산출된 여성서사를 수렴하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텍스트의 꼼꼼히 읽기’라는 문헌중심주의의 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은 ‘자기문화기술지’라는 글쓰기를 통해 북한 여성서사를 넘어 ‘여성생애사 다시 쓰기’라는 문화실천적 글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글쓰기는 앞서 언급한 『세 여자』처럼 규범과 제도와 위계화된 삶의 문화적 위치와 전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한반도를 넘어 인간해방을 꿈꾸는 상상적 글쓰기의 전복성마저 수용하고 있어서 더욱 인상적이다. 특히 이 저작에서 감행된 ‘여성생애사 다시쓰기’는 권력의 미디어정치로 잘 포장된 이데올로기의 누빔점 아래 살아가는 하위주체들의 일상과 꿈을 드러내며 분단의 모순을 가로질러 수많은 경계 위에 선 여성의 예외상태를 재현해내고자 한다. 이 글쓰기는 소설 텍스트를 포함한 각종 문헌들을 수렴하고, 현장조사와 면담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억여행’을 표방하는 사회학자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2003)과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2022)을 연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 가진 여성서사의 전통을 잇고 있어서 흥미롭다.

두 저작은 북한여성에 관한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의 다른 지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모범적 사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학이 보여준 국가 및 국제정치, 정책과 이데올로기 등에 편중된 연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저작은 여성서사를 통해 북한여성의 일상과 내면을 살피려는 최근의 연구성과이나 이미 ‘문화연구로서의 북한문학’의 가능성과 ‘지역학으로서의 한반도학’의 지향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일, 『근대 여성 12인, 나를 말하다-자서전과 전기로 본 여성의 삶과 근대』, 서울: 책과함께, 2020.
-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분단의 사회심리학』, 파주: 창비, 2020.
- 김성경, 『살아남은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파주: 창비, 2023.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0.
- 김재용 · 이상경, 『혁명 속 여성, 여성 속 혁명-북한의 여성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2.
- 박순성 · 홍민 편, 『외침과 속삭임-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 손지연 편, 『전후 동아시아 여성서사는 어떻게 만날까』, 서울: 소명출판, 2002.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 생활』, 파주: 서해문집, 2020.
- 유입하,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서울: 역락, 2022.
- 이상섭, 『자세히 읽기로서의 비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005.
- 조선희, 『세 여자』, 서울: 한겨레출판, 2017; 2020특별판.
- 조은,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 서울: 파이돈, 2022.
- 조은, 『침묵으로 지은 집』, 파주: 문학동네, 2003.
- 한국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James C. Scott, 전상인 역,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은닉대본』, 서울: 후마니타스, 2020.
- 김성보, 「비판적 한반도학의 시각으로 본 북조선 연구」 『동방학지』 제190집, 2020, 1~24쪽.
- 김재용, 「북한의 여성문학」 『한국문학연구』 제19권, 1997, 151~168쪽.
-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 『조선문학』 루계725호, 2008, 22~25쪽.
- 박성은,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8호, 2019, 361~392쪽.

- 오창은,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제96권, 2018, 38~56쪽.
- 오탈호, 「타자의 타자성 발견, 젠더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여성문학의 다층성 추적」 『문학인』 제9호, 2023봄, 463~464쪽.
- 오탈진, 「서평-여성혁명이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379~385쪽.
- 이봉범, 「냉전과 북한연구,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한국학연구』 제56호, 2020, 29~83쪽.
-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권, 2007, 349~385쪽.
- 이상경, 「임순득 소설의 '전쟁미망인'과 북한의 '사회주의협동화」 『근대서지』 제24권, 2021, 360~396쪽.
- 마틴 와이저, 「난 국가보안법 피해자」 『오마이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1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1942(2023년 5월 2일 검색))

유임하 (Yoo, Im-ha)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한국문학 연구에서 분단과 전쟁, 반공주의, 검열 및 자기검열 등의 의제와 함께 북한소설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작가의 신화-한국소설과 이야기의 사회문화사』, 『한국문학과 반공주의』,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공저),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공저) 『북한문학의 지형도』(공저), 『한국소설과 분단이야기』,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등이 있다.